

고려대 ICR 센터, 모바일 시대 한중 특허분쟁 대응방향 논의

기사입력 2014-05-22 11:40 기사수정 2014-05-22 11:40

고려대는 혁신·경쟁·규제법센터(ICR 센터)가 오는 24 일 중국 베이징 엠파크(Empark) 호텔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고 22 일 밝혔다.

고려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이 지적재산권 창출과 보호노력을 강화하고 반독점법 집행강도를 급격히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점진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상황이다.

'IT 산업 구조변화의 최근 국제적 경향 및 한국과 중국의 규제 동향'이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대회에는 모바일혁명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세계 IT 산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정책의 흐름과 향후 집행방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.

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△최근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경쟁법적 규제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관해 중국 정부 정책입안자 및 학계의 논의를 직접 들어보고 △한국의 최신 이슈들에 관한 공정위와 한·중 학계의 논의 △미국 FTC, 유럽 경쟁총국, 미국 최고의 독점금지법 전문 연구소 및 일본 학계의 전문가들과 최신 글로벌 경향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다.

yjjoe@fnnews.com 조윤주 기자